

독일학교 연극교육의 정착화와 연극수업의 특징

-중등학교 연극수업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Settlement of Drama Education in German School - Focusing on Drama Class of Secondary School-

이원현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Won-Hyeon Lee(bochum112@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한국 학교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예술 교과목으로 언급되는 '연극'과목의 올바른 학교 내 정착화를 위하여, 세계에서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독일 연극교육을 객관적 모델 삼아 관련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독일학교와 연극교육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2009년 독일의 교육개혁 정책시행 이후 독일학교 연극교육의 정착화과정과 연극수업의 방향성과 특징들이 언급된다. 이러한 연구배경에는 현 한국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창의력 증대와 융합(통합)교육 제시를 위해 연극교육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앞으로의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적 방향성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 중심어 : | 독일연극교육 | 연극놀이 | 연극수업 | 교육개혁정책 | 융합교육 |

Abstract

For the correct settlement of 'drama' subject mentioned as a new art subject within school education of Korea,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evant contents by using German drama education equipped with the systematic educational system in the world as an objective model. First, analyzing the historical correlations between German school and drama education, this paper refers to the settlement process of drama education in German school after the enforcement of educational reform policy in Germany of 2009, and also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drama class. Such a research background contains the objectives to directly/indirectly verify the suitability of drama education for the suggestion of convergence(integrated) education and increase of creativity required for the current Korean school education, and also to be helpful to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directions for Korean culture & art education in the future.

■ keyword : | German Drama Education | Drama Play | Drama Class | Educational Reform Policy | Convergence Education |

I. 들어가는 글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과 2015년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연극교육은 다른 장르의 예술교육보다 새로운 교육정책 안에서 학생들의 창의력향상과 부합하고, 통합교육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안적 모델로 평가된다. 더욱이 최근 2014년 9월 24일에 발표한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에 연극이 대단원으로, 중학교 국어교과에는 단원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예술교과에서는 일반선택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달리 현실적으로 학년별, 연령별, 교급별에 따른 연극교육의 성취 기준 설정과 해당 프로그램 구축화 작업은 여전히 체계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한 학교 내 부적합한 조건들과 열악한 환경들은 주요 문제들로 언급된다.

본 글에서는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극교육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바라보고자, 문화예술교육의 정착화과정을 앞서 고민한 독일 연극교육을 객관적 모델과 잣대로 연구코자한다.

우선 독일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튼튼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체도를 실행하여 온 국가이다. 과거역사에 있어서 통일이 늦었던 독일은 18세기에 300여 개의 영주국으로 분할되었을 때, 각 영주들은 권위와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앞 다투어 화려하고 웅장한 궁정극장들을 세웠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시민계급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이들도 자의식의 상징으로 큰 규모의 시립극장들을 세웠다. 이러한 특수상황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독점적이고 중요한 극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도시와 중, 소도시들이 극장들을 소유하고 수준 높은 공연들을 행하여 왔다.

이러한 독일의 공연환경은 공연예술에 대한 친숙함과 더불어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극장과 학교를 중심으로 독일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정착화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학교 내 연극교육의 현재의 교육적 체계와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한

국의 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제도권교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토대 위에서 독일 연극수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교육적 노력들을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2009년 독일의 교육개혁 정책시행에서 학교 연극교육을 위해 가장 진보적 모습을 보인 함부르크의 경우를 한 사례로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배경에는 현 한국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창의력 증대와 융합(통합)교육 제시를 위해 연극교육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앞으로의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적 방향성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II. 독일학교 연극교육의 역사적 변화

현 독일학교 연극수업의 정착화 과정이전, 역사적 측면에서의 연극교육의 학교 내 수용모습은 연극교육의 근본적인 고민의 실체를 직,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독일학교에서 연극수업이 교육적으로 행해진 것은 이미 15세기 후반기부터라고 전해진다.

르네상스시대였던 당시의 연극수업에서는 교양적 차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들, 특히 테렌스나 플라우투스 등의 작품들이 읽혀졌고 기독교 교리의 전파와 도덕적 교화를 목표로 연극수업이 행해졌다.

17세기 들어서면서는 연극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연극적 행위가 교육적으로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인식과 올바른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위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화술, 타인에 대한 이해, 자신 있는 행동, 인체 표현의 훈련 등이 당시 연극교육의 목표였다. 그리고 이후 18세기 독일의 연극교육은 고트셴트(Johann Christioh Gottsched)를 중심으로 한층 더 발전했는데, 당시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연극을 선호하여, 라신느와 코르네이유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독일 극작가들의 작품들이 즐겨 읽혀졌다.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적 입장이 강했던 당시의 연극적 기류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연극행위는 인간

의 도덕적 가치를 주요하게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 드라마의 극 내용은 관찰과 체험적 자세가 강조되었고, 도덕적,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코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연극이 행해졌던 시대의 연극교육에서는 공연을 통한 자기표현보다 절제된 훈육중심의 희곡읽기가 주요하게 행해졌다. 이는 20세기 초반 실증주의의 합리성에 입각한 리얼리즘시대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이 시기는 '청소년 운동'과 더불어 연극의 교육적 기능과 학교연극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였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독일에서는 19세기 초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독일사회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당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외에 청소년이라는 세대가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세대는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위치한 연령집단을 의미하는데, 당시 세기 전환기의 문명화와 도시화의 저항하려는 움직임 생성의 표상이 되었다. 이것이 '청소년 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의 주체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이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개혁을 표방하는 사회개혁운동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세의 낭만주의 시기의 유랑하는 학생들을 모델로,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 그리고 집을 벗어나 천자연적 생활을 하자는 문화운동이었던 '청소년 운동'은 와해되는 독일사회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이와 연결된 당시 교육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이성의 절대화와 지식전달에 편중된 학교교육을 교정하고 조화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예술교육은 이러한 경향과 연결되어 사회적, 도덕적 내용을 주요소재로 다뤘다.

20세기 초 청소년 연극에 대해 예술적 창조력보다 공동체 체험을 주요하게 여기며 '놀이'의 연극적 활용을 비중 있게 다뤄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예술적 연극을 통한 교육은 창작력과 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였다. 이는 예술작업 자체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 측면이다.

이 당시 후자의 입장에 서있던 루세르케(Martin

Luserke)는 희곡을 무대에 재현하는 학교연극의 과제를 지양하고, 음악과 인체의 동작위주로 장면을 구성토록 하는 교육개념을 개발하였다. 학교연극은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의 현실적 창조가 목적이란 것이 그의 견해였다. 거기서 체험되는 자아발견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그는 보았다. 이처럼 예술형상과정을 인식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연극적 형상의 기본조건을 연극교육이 활용해야 한다는 그의 연극교육관은 교훈의 전달에 집중되어있던 예술의 좁은 틀을 뛰어넘은 최초의 모델이었다[1].

또한 20세기 초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연극도 독일 연극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에 의해 주장된 교육극은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시작되었지만, 이후 영향을 준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면, 인간교육을 위한 연극행위의 의미는 희곡 안에 있는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극적 상황의 이해와 장면구축등 공동작업의 체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극의 교육적 효과는 연기체험의 과정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 즉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방식이나 이것과 관련된 태도의 실행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는 1920년대 학생들과 아마추어인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사용토록 교육극 관련 작품들을 썼다.

브레히트의 교훈극 실습에서는 연기자와 관객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교훈극을 실습할 때 연기자는 동시에 배우가 되어야 했고, 차별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언제나 지속적으로 역할을 바꿔야 했다. 이때 참여자들은 다른 이의 행위에 느낌과 이해를 갖기 위해 다른 이의 몸짓과 행동을 모방해야 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주시해야했으며, 다른 이를 또한 주시하고 연기해야 했다.

브레히트는 생존 시 교육극의 실천적 작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그의 많은 이론들은 실현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독일 학교에서 브레히트의 교육극 이론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독일 학교연극과 청소년 연극은 지나친 이성주의 입장에서의 예술교육실행은 문제점으로 비춰졌다. 이 당시의 예술교육은 1920년대와 같이 윤리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다시금 청소년 운동과 새로운 문화의식이 나타났다.

이에 쉴러의 놀이 개념이 대두, 강조되었다. 이 당시는 학교연극도 제작위주의 연극이 아닌 놀이로 대체되었는데, Darstellungsspiel ‘표현놀이’라는 용어도 이때 탄생했다. 이 용어는 연극을 의미하는 독일어 ‘Theater’나 ‘Schauspiel’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등학교 연극교과목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프리드리히 쉴러는 예술이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인식 속에 1793년 그의 <미학교육에 대한 서신>(Briefen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에서 더 나은 사회건설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밝히고 있다. 그에게 프랑스혁명의 공포 시기는 위협적이었기에 직접적인 정치적 방법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반대하였고, 더 나은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유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미학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쉴러에 따르면, 미학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이 ‘본성’과 ‘지성’이 함께 균형 잡힌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행동할 수 있을 때 달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인간은 놀이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 라고 하였다[2]. 여기서 쉴러가 놀이(유희)와 자유를 상호 연결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연극놀이(Theaterspiel)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놀이는 단순한 목적자체를 지닌 것이 아닌 인간의 타고난 재능을 통한 놀이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는 놀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치적인 전통적 예술교육에 대한 비판은 또다시 196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미적 교육과 정치적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연극교육에서 사회적 관계와 태도에 관한 내용을 연극수업에서 배제시킨 것이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극 교육학자들은 놀이에서 사회정치적 문제에 다가가는 미적 훈련을 함으로써 현실과 정치에 대한 타성과 편견의 극복 그리고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각의 형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3].

1960년대 후반 독일은 사회, 문화적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연극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맞는다. 우선적으로 교양으로서 연극의 한계성을 문제 삼았고, 이전

에 관행처럼 다뤄진 단순한 교훈적 측면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 사회적 상황과 연계하여 교육하는 내용의 것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한 사회학적 수용이 학교연극에서 일어났다. 무엇보다 연극수업에서 놀이, 연극 이외에 상호교류가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졌다. 또한 브레히트의 영향을 받은 역할극은 중요한 수업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불합리한 억압구조의 사회를 발견케 하며, 이후 이를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적 수단이 되었다[4].

1980, 90년대 이후에는 또 다시 학교연극에서 계몽주의적 전통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연극의 정치적, 계몽적인 전락에 대한 부분들이 연극의 미적요소들과 연계되어짐에 대한 거부가 나타난 것이다[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에도 이러한 이성주의적, 계몽주의적 입장에서의 주장과 미적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마치 이성과 감성주의의 예술사조들의 교체적 등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 등장하였다.

교사들은 초기 급진적 교육개혁 정책결정과 연극교육의 교과목 정착화시행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연극교육의 효율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극놀이가 미적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사실은 ‘연극과 교육’ 관련 다양한 심포지엄의 논의를 통해 입증된다.

실제로 쉴러시대부터 오늘의 교육개혁시기에 이르기까지 미적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비록 오랫동안 미적교육의 개념과 이에 대한 입장은 역사상 그 의미를 달리해왔지만, 이러한 미적 교육의 개념은 독일 학교연극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으며 제작 실기교육에서도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삶, 인간의 사회인식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성찰의 결과물은 학교연극과 청소년연극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현재의 독일 연극교육의 방향성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간과 할 수 없다.

III. 독일연극교육의 정착화

위의 글에서 설명하듯이, 독일 내 '연극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교육 방법론적 발전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행해져왔다.

현재 독일학교 연극과목 수업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등과정I 및 II에서 행해지는 추세이다. 이는 독일의 모든 지역에서 연극수업 진행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과정인, 7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SekundarstufeI'(제2차 과정I 또는 중등학교I)로 나뉜다. 그리고 인문계인 경우는 11학년에서 13학년을 'SekundarstufeII'(제2차 과정II 또는 중등학교II)로 칭하는데,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이다[6]. 특히 이 과정에 속하는 독일 김나지움의 상급과정에서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 연극과목은 음악과 조형예술 이외에 세 번째 미학과목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심지어 독일 9개 연방주는 본 수업과목과 관련하여 아비투어(Abitur, 고교졸업시험)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아비투어의 과목을 줄이라는 2006년 문화교육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지침과는 상반된 행동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개혁에 연극을 일반 교과과목으로 채택 시행함에 있어서 함부르크 시는 다른 연방지역보다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현재 함부르크는 지방 자치주에 해당하고, 독일 사회민주당(SPD) 의지 지 세력이 많은 관계로 정치적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함부르크에서는 2010/2011학년도 이래로 연극과목이 초등학교의 정식과목으로서 고등과정까지 연속적으로 행하도록 의무과목이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과정까지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그 지속성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연극과목은 오랫동안 음악(Musik)과 예술(Kunst)과목과는 달리 구속력 없이 선택수업으로만 존재하였기에, 이러한 개혁적 의지에 독일사회와 교육계는 놀라움과 당혹함을 비추며 대립적 의견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독일 학교 연극연합'은 지금까지 그림자존재였던 연극수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희망하며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보인 반면, 행정기관이외에 함부르크 학교들은 이러한 새로운 의무과목

을 교육체계의 '과과의 축'으로 여기고,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교육행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무엇보다 연극수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다는 사실과 수업을 이끌 지도교사가 충분히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7].

더욱이 함부르크 김나지움 연합회 회원들의 다수는 핵심과목인 수학, 독일어, 영어 그리고 자연학문들을 위한 학습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추가적으로 미학과목인 연극과목을 수용하는 것을 문제시하며 새로운 규정에 반대하였다. 이는 이전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13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4학년제인 초등학교 기간을 6년으로 대체하는 학교교육 개혁결정 이후에 나온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교사부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운영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극교육을 일반 교과과목으로의 채택은 이해할 수 없는 성급한 교육정책이라 여겼다. 대학졸업 전공자들의 수용방안도 논의되었지만,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관련 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없었고, 타 지역에서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사까지 수용해도 근본적 문제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와 연방주는 예술교육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를 행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독일 교육정책의 변화에 연극과목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커져가고, 미흡한 교육환경과 교사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일반과목 현직교사들이 연극수업의 교육적 기능과 효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재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교사인력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과정은 지역의 지원을 받고 시(도) 지역장들의 협력 속에서 전국도처에서 실시된다.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전공들이 새롭게 개설되어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2009년 독일의 교육개혁 당시 소수의 독일 대학교에서만 연극과목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을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후 이러한 교사수급의 문제극복의 방안으로 대학 내 연극교과목에 대한 전공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독

일에서는 ‘라이프니츠 하노버 종합대학’(Leibniz Universität Hannover), ‘하노버에 있는 음악과 연극 대학’(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nnover), ‘힐 데스 하임 재단 종합대학’(Stiftung Universität Hildesheim),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과 ‘브라운슈바이크의 기술 종합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Braunschweig)과 같은 5개 대학의 협력 안에서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전공이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8].

3.1 독일학교의 연극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함부르크의 김나지움의 고학년 ‘연극교육계획안’을 살펴보면, 연극과목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의 목적은 ‘연극미학 토대의 이해’, 그룹 안에서의 각자의 ‘창의력 발전’, 표현예술과 연극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비평능력과 판단능력의 발전’ 그리고 공공의 삶의 형성과 더불어 ‘문화 삶에 적극적 참여’의 장려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함부르크의 연극교과에서 제시하는 역량들은 ‘전공역량’, ‘전문역량’, ‘제작능력’, ‘소통능력’ 그리고 ‘사회문화 능력’으로 함축되어 있다[9].

이와 비교하여 베를린시의 ‘연극교육표준안’에서 연극 수업내용은 학생들의 공동제작의 형태에서 소통을 위해 장면 발표를 행하거나 음악, 조형예술, 언어, 체육, 역사/사회학과 같은 다른 과목들의 내용을 담으며 다른 전공들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인다. 연극 미학적 행위습득에서 ‘연극의 이해’(전문지식 습득), ‘연극의 형상화’(형상화 습득), ‘연극에 반영’(소통의 습득) ‘연극에 참여’(문화적 습득) 등 네 가지 지식습득에 대한 교육 지향점의 구체적인 교육전략들이 독일 베를린 시의 ‘연극 교육표준안’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베를린의 연극교육표준안에서- 중등과정 7-10학년 Gesamtschule를 위한 표준안에서- 연극과목의 목적과 과제를 살펴보면, 함부르크의 경우와 연극교육의 방향성과 목표가 동일하게 나타남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독일 연방주의 독자적인 교육방향성과 정책이 존중되지만, 오랜 연극교육과 학교와의 역사적 관계성을 통해 획득한 결과론적 지향하는 핵심역량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극수업 ‘Darstellungsspiel’의 목적과 과제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연극의 부가작업들, 작업의 방법, 표현수단과 배우에 대해서 알게 된다. 독자적인 연극실습과 동반되는 심사숙고함에서 예술의 형태로서 삶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미학적 현실이 어떻게 형성화하여 창조되는 지에 대해 경험한다.

게다가 본 연극수업은 청소년들에게 활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새로운(=개혁적인) 문화적 삶의 참여 경험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연극관객과 연극을 행하는 그룹의 참가자로서도 가능케 한다.

연극수업은 그의 총체적인 작업방법에 의해 특별히 중심적인 지식습득의 영역에 대해 집약적인 비판적 고찰의 결과를 가져온다: 심리적인 것 이외에 특히 다양한 육체적-감성적, 감정적이고 교훈적인 가능성들을 제공한다[10].

이러한 독일 학교의 연극수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관한 세부적 항목을 살펴보면, 독일사회에서 ‘연극과 학교’의 관계는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상적 커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절한 관계의 이면에는 다양하게 차별된 목표설정과 일련의 열린 문제들 그리고 여러 해결되지 않은 교육정책의 문제점들이 가려져 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서의 연극과목의 내용, 방법, 목적들에 대한 부합성, 극장과 학교사이의 교육을 위한 연계작업 그리고 연극을 매개체로 한 통일된 교육표준안 구축 등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 진보적인 연극 교과목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는 교육적 가치와 효능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고 있지만, 지속적인 고민과 담론을 통해 더 나은 발전적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3.2 독일 연극수업의 교육적 특징과 효과

오랫동안 연극수업 ‘표현놀이’는 모든 교과수업의 과정 안에서 좋은 가르침의 도구로 수용되었고, 수업에 부속하여 활용되는 예술적 행위로 인해 소극적 수용의 양상을 낳았다. 현재에 이러한 측면은 오히려 융합적,

통합적 교육을 위한 효능적 기능으로 이해된다. 특히 독일 학교 중등과정의 연극과목에 의한 타 교과와의 융합(통합)적 활동수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적 효능을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연극 수업형태는 단순히 정치, 역사 또는 외국어 수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법적으로 자연과학 수업에도 개혁적 변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육체 놀이 과정들과 공동체 작업형태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과 프리젠테이션 방법에 토대를 둔 연극교육방법은 높은 위상을 얻었다.

또한 독일연극 교육에서 연극수업은 사회적 학습도구로서도 활용된다. 이주사회가 형성된 독일사회에서는 국제문화 놀이교육과 언어의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교육 프로그램 형태와 관련되고, 전공과목의 주제에 따른 연극수업형태는 즐거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다.

이러한 교육적 특징들은 독일 극장에서 행해지는 시민교육활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연극교육에 있어서 '제작'과 '수용', '형성화하기'와 '반응하기', '개별적 예술행위'와 '문화적 참여'는 비중의 차이를 두거나, 대립, 반복하지 않고 연극 미학적 행위역량과 동등한 참여경향을 보인다.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연극수업에서는 육체를 통한 풍부한 표현의 실현과 예술 관람교육 그리고 시대적 연극의 이론적 관계가 상호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이는 실기와 이론 교육을 교육단계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하며 조정하고 있다. 연극실기와 이론의 적절한 교체관계 설정과 조정은 연령과 수업단계에 따라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다양한 연결고리를 갖는 표현놀이의 기초코스인 Sekundarstufe I는, 연극 교육단계에 있어서 비중 있는 이정표로, 앞으로 진행될 실기와 이론의 심화교육에 앞서 관련 기초적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척도에 맞는 연극교육 설계 프로그램은 2009년 발간된 코스북인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에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고등 졸업시험인 Abitur를 위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11].

본 교재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실제 연극 활동에 있어

서 필요한 전문지식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독일의 연극 교재들은 연극과 관련 학문들로부터 행해지는 담론의 영향을 받으며 전공 교수법 관점에서 전문화된 내용의 견고함을 확보해 나간다. 반면 참고로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위한 연극교과용 도서가 2002년 발간되었는데, 일반학교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전문적 무대기술에 대한 분야별 설명과 이론들을 담고 있어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2003년 중학교 교재 『중학교 연극』이 발간되었고, 초등학교 교재는 2004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눠 3종이 발간되었다.

3.3 독일 연극수업에서의 놀이와 실험

학교의 연극수업에서 학생들은 현실적인 삶을 연극 놀이 내지는 연극과정에 끌어들이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교의 다른 교과목 수업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무대는 가능성의 공간이고 보호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정신적인 판타지와 육체적 작용을 발견, 경험하고 재현한다. 여기서의 연극은 경험의 매개체이고, 학습형태로서 학생은 행하는 연기에서 자기의 모습과 역할을 계획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성에서 어떠한 연기형태를 취할지 상황에 맞게 실험을 행한다. 여기서 문화적인 동질성이 교육되고, 더 나은 사회성을 위한 교화의 기회가 제공된다.

공연제작을 방향으로 삼는 연극교사들은 소재내지는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공간, 오브제, 움직임 그리고 음악 등을 활용한 형식적 실험을 이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제안으로부터 연극의 동기가 결정체가 된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교사들도 있다.

실험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조건이나 중요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문학적인 작품의 포스트모던적 각색,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제작, 춤과 움직임 또는 음악적 상연, 즉흥극, 특별한 공간에서의 상황극 또는 퍼포먼스 등의 일정한 전략이 프로그램에 실험적으로 세워질 지에 대한 부분은 제작준비 과정 속에서 토론과 더불어 연극의 재미를 자극한다.

실제 청소년들은 그들의 제작에 있어서 그들의 새로운 매체의 표현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출적 처리의 작업은 단순한 일상적 경험에 따른 재생이 아닌 예술적인 도약과 변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실험작업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가공하는 실습적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공동적 작업의 형태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물론 독일 연극수업에서 이러한 실험 작업의 형태는 창의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행한다[12].

IV. 나가는 글

기존의 독일학교의 연극교육은 지난 20년간 단지 오락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 그 교육적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교육 방법론에 대한 활발한 담론에 비해 연극교육의 제도권 교육현장에서의 위치는 다른 주요과목들과 동일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연극 교육은, 연방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교과로서의 연극수업시행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다른 연방지역보다 독일 함부르크는 연극수업개발과 그 제공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2011 학년도 이래로 초등학교의 저급과정에서 연극수업을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의무과목으로 진행토록 하였고, 고등학교 졸업과정까지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그 지속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사확보의 어려움과 전체 교육과정에서 연극수업시간 확보 어려움에 따른 일부학교의 반발도 있었지만, 현재는 연극수업의 정착화를 위해 기존 교사들이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교육개혁을 따르고 있다.

이에 국내의 연극관련 교육의 변화과정은 1990년대 이후 열린교육이란 슬로건 아래에서 교육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특기적성반

의 운영을 시작으로 연극관련 교육이 현실화 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색은 연극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기대에 부합하는 교육적 성과를 일구어내지 못하였다. 이후 2000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났고,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개원과 더불어, 이전 2000년 한국대학 연극학과 교수협의회 발의에 출발하였던 연극교육의 정착화 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 광역단체의 자체적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13].

그리고 ‘2015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제도권교육에 있어서 연극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연극교육의 실행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논의,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산재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 독일과 같은 해외의 사례 연구는 연극교육 실행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케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보완과 해결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 사회에 학교 연극교육의 필요성과 효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단계적이고 적합한 교육체계와 실행은 연극교육표준안 등을 통해 제시된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이뤄짐을 주지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개혁 초기에 대두된 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수업시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교기관의 연계적인 노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간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 2018년 국내 연극교육실행 이후 대두될 문제들이기에 관련 후속 사례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남상식, “미적교육으로서의 연극교육- 독일의 학교연극,” 연극교육연구, 제8집, pp.253-262, 2002.
- [2] F. Schill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p.95, 1965.

- [3] F. Messerschmid, "Die gesellschaftliche Funktion des Schulspiels," *Das Spiel in der Schule*, H.4, p.152, 1970.
- [4] R. Steinweg, *Das Lehrstück, Brechts Theorie einer politisch- ästhetischen Erziehung*, pp.87-89, 1972.
- [5] 이원현 "독일학교 교육정치와 연극과목 *Darstellungsspiel* (표현놀이)," 연극교육연구, 제25집, pp.250-253, 2014.
- [6] H. Ebert-Paris, "Theater mit Kindern-mehr soll es nicht sein!," B. Ruping, *Schneider, Theater mit Kindern, Erfahrungen, Konzepte, Methoden*, p.18, 1991.
- [7] DIE ZEIT № 41/2011Aktualisiert 11. Oktober 2011 06:56 Uhr 42 Kommentare(Schulreform in Hamburg: Reif für die Bühne)
- [8] http://de.wikipedia.org/wiki/Darstellendes_Spiel
- [9] <http://www.hamburg.de/contentblob/2494460/data/darstellendes-spiel-igs-sek-i.pdf>
- [10] 이원현 외, 2011 문화예술 교육표준 개발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18, 2011.
- [11] M. Pfeiffer and V. List, *Darsteellendes Spiel*, Ernst Klett Verlag, 2009.
- [12] Ole Hruschka, "Theaterpädagogik in der Schule," *Theaterpädagogik*, pp.166-181, 2012.
- [13] 이원현 "독일학교 교육정치와 연극과목 *Darstellungsspiel* (표현놀이)," 연극교육연구, 제25집, p.263, 2014.

저 자 소 개

이 원 현(Won-Hyeon Lee)

정회원



- 1990년 ~ 1996년 : 독일 Bochum Ruhr 대학교 연극/영화/TV방송학 전공(학사, 석사)
- 1997년 ~ 2001년 : 독일 Bochum Ruhr 대학교 연극/영화/TV방송학 전공 박사과정

- 2001년 12월 : 독일 Bochum Ruhr 대학 연극학 박사 취득
- 2004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관심분야> : 문화예술교육, 연극교육, 교육연극, 공연이론(연극사, 연출론, 연기론 등)